



VIP preview 4.23
Public 4.24~26
이스랏 아트룸 booth B3

iseurrat

임재형 Jaehyoung Im →

김현영 Hyeonyoung Kim →

박유현 Youhyun Park →

김정현 Jeonghyun Kim →

금예진 Yejin Keum →

민정범 Jeongbeom Min →

임재형 Jaehyoung Im

b.1988

@imjaehyoung_works

임재형의 작업은 서로 다른 두 관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상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기의 방식과 그 의미에 관한 것이다.

임재형이 다루는 상실은 이미지는 개인적/사회적 사건, 일상의 경험과 미술의 역사를 아우른다. 이미지가 야기하는 심리적/윤리적 거리를 가늠하고, 이를 다루기에 적합한 그리기의 방식을 모색하는 일은 그의 작업을 이루는 주요한 과정이다.

희미하지만 흐릿하지 않은 임재형의 그림은 멀고도 가까운 양가적 거리감을 드러내는데, 이는 부재한 것에 대한 거리의 시각적 구현이다. 더하기보다 빼는 방식을 고민하는 그의 그림은 그려진 것을 통해 그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예둘러 그리기'라 할 만한 임재형의 방법론은 부재가 동반하는 앞의 공백을 임의로 채우거나 재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한 창작의 방편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에서 회화를, 동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임재형, 종말연습 Doomsday Practice, 2025, acrylic and oil on canvas, 194 x 259 cm

“CNN의 창립자 테드 터너는 네트워크 출범(1980) 즈음 찬송가 ‘Nearer, My God, to Thee’를 연주하는 미 군악대의 모습을 촬영하고 보관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이 확정될 때 CNN의 마지막 방송으로 이 영상을 내보내려 했다.

영상은 2015년 CNN의 전 인턴 마이클 발라반에 의해 유출되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마지막으로 연주된 곡이라는 통념 때문에 이 노래를 종말의 상징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은 영상의 말미, 노래가 끝난 침묵의 순간, 그들이 예견했던 영원한 침묵의 순간을 재현한다.

종말을 확정하고 방송할 권리에 대한 입장, 찬송가와 미 군악대가 재생산하는 종교/국가성, 종말의 순간 나눠야 할 것이 음악 연주라는 낭만적인 상상, 영상의 엄숙한 미감 등은 우습고도 의미심장하며, 또한 논쟁적이다.

이 영상은 종말에 대한 상상이 삶 속의 선택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부재와 더불어 존재한다.”

-작가노트





임재형, *틈 Interstice*, 2025, woodcut on paper, AP, 30×40cm



임재형, 틈 Interstice, 2025, acrylic and oil on canvas, 75 x 65 cm

“성 도마의 의심을 다룬 필사본에서 손 부분을 발췌했다. 그는 자신의 이해를 벗어난 상황 앞에서 의심했고, 이내 더 큰 믿음에 도달했다.

그 의심을 믿음의 부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의 한 형태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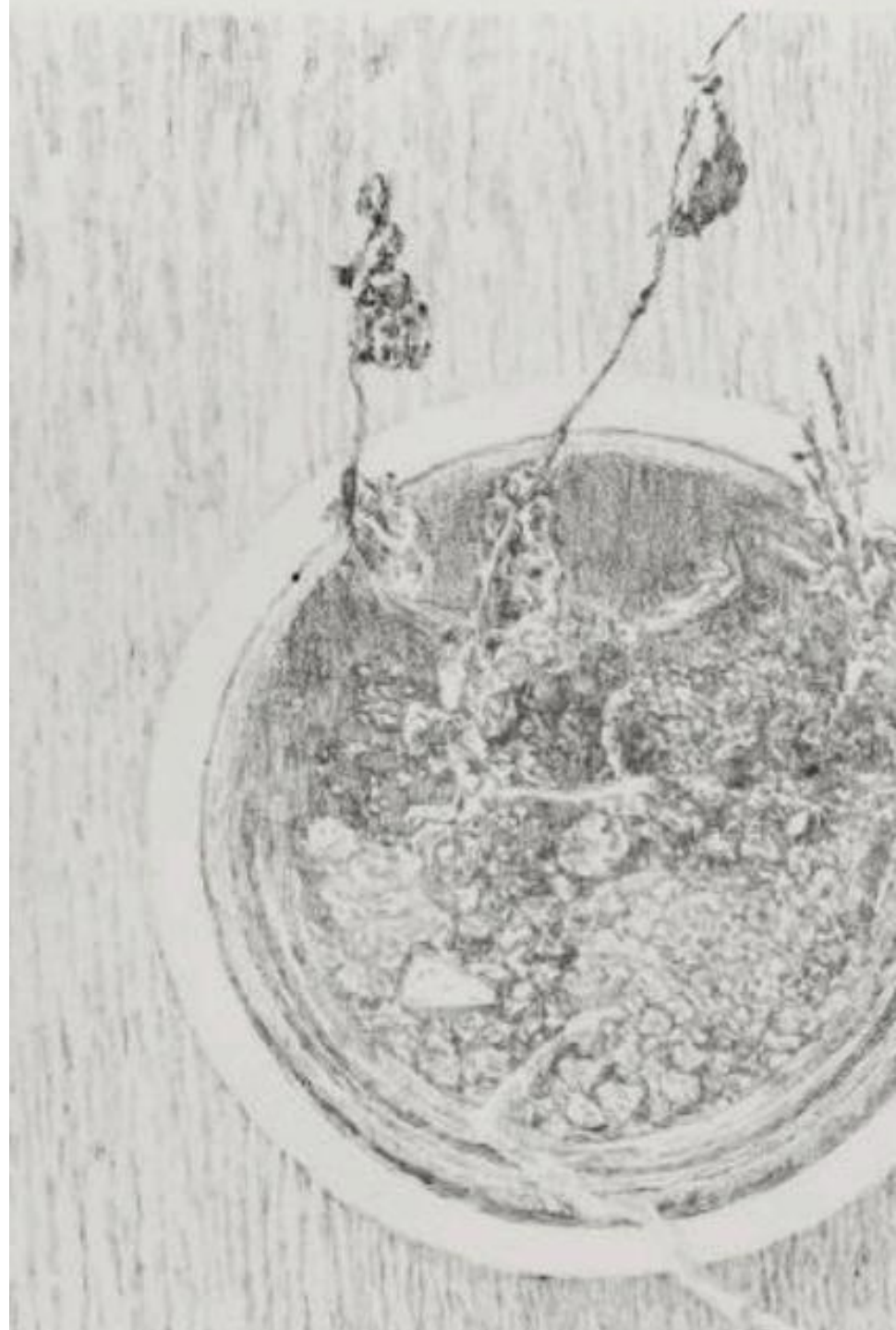
임재형, 섬 Island, 2015, lithograph on paper, AP, 2 pieces 38 × 38 cm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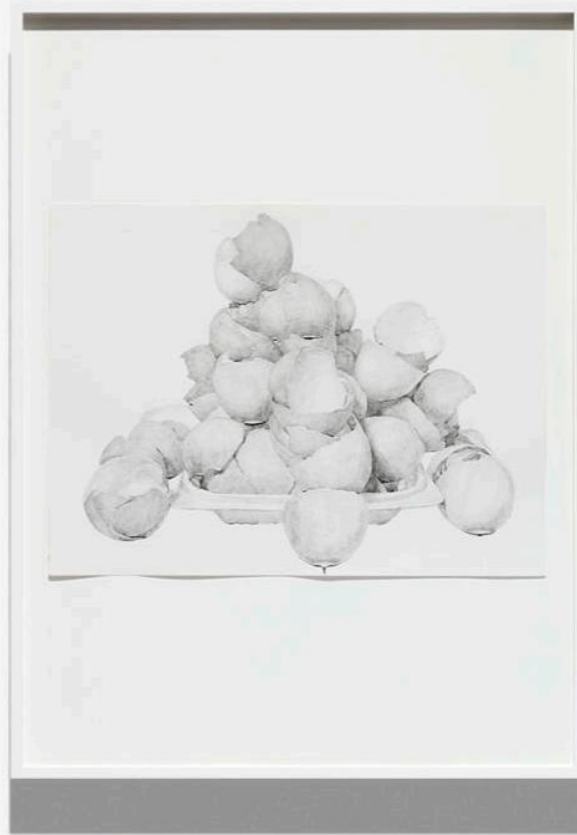
식물의 빈 껍질인 마른 풀은 빈자리와 유사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껍질은 어떤 것에 극도로 밀착한, 그것만을 위한 자리이다. 예컨대 내 몸을 둘러싼 피부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나만을 위한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빈 껍질은 빈자리의 일종이다.

여타의 빈자리와 구별되는 빈 껍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재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구체적인 형상이다. 껍질은 한때 자신이 품고 있던 실체의 형상 그 자체였으므로, 그것의 존재는 부재한 것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는 일종의 증거와도 같다. 즉, 빈 껍질은 과거의 존재와 현재의 부재를 동시에 증언한다..”

- 작가노트





임재형, 조각 Fragments, 2020, graphite on paper, 3 pieces 42×56cm each

김현영 Hyeonyoung Kim
b.1995
@kim_hyeonyoung_art
hyeonyoungk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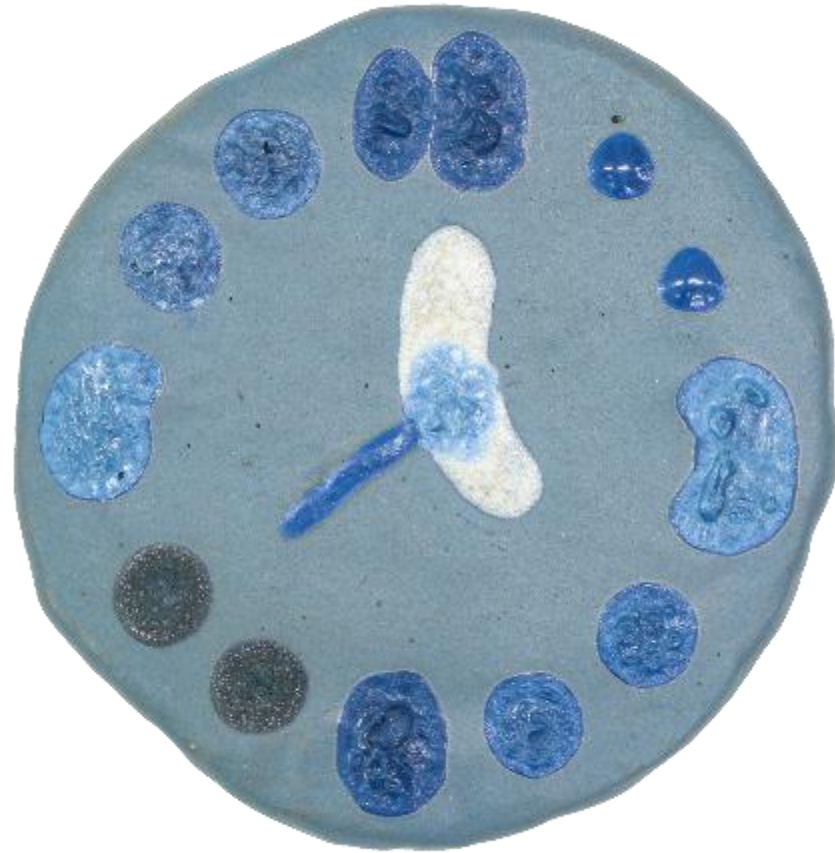
김현영은 삶에서 마주하는 우연과 필연을 우리 존재 조건의 일부로 바라보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의 층위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도자를 통해 인간 의식의 바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질서를 감각하고, 분리된 개체들이 동일한 법칙 아래 놓여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에 주목한다. 그녀는 그녀의 작업을 아래의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나는 흙에게도 자유의지를 부여하고자 한다.”



김현영, 그 날(The Day) 1, 2026, ceramic, 11.2 x 12 x 13.2 cm



김현영, 시계(스치듯, 쓸고, 지나가는), 2024, Ceramic, 25 x 24.6 x 3.5 cm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4, 2024, ceramic, 24 x 25 x 2.5cm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5, 2024, ceramic, 24.5 x 20 x 0.5cm



김현영, 시계 (Forms of time) 7, 2024, ceramic, 22.5 x 20 x 3cm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9, 2024, ceramic, 20 x 16 x 3.5cm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11, 2024, ceramic, 19.2 x 19 x 2 cm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13, 2024, ceramic, 30.8 x 34 x 3 cm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15, 2024, ceramic, 26.5 x 25 x 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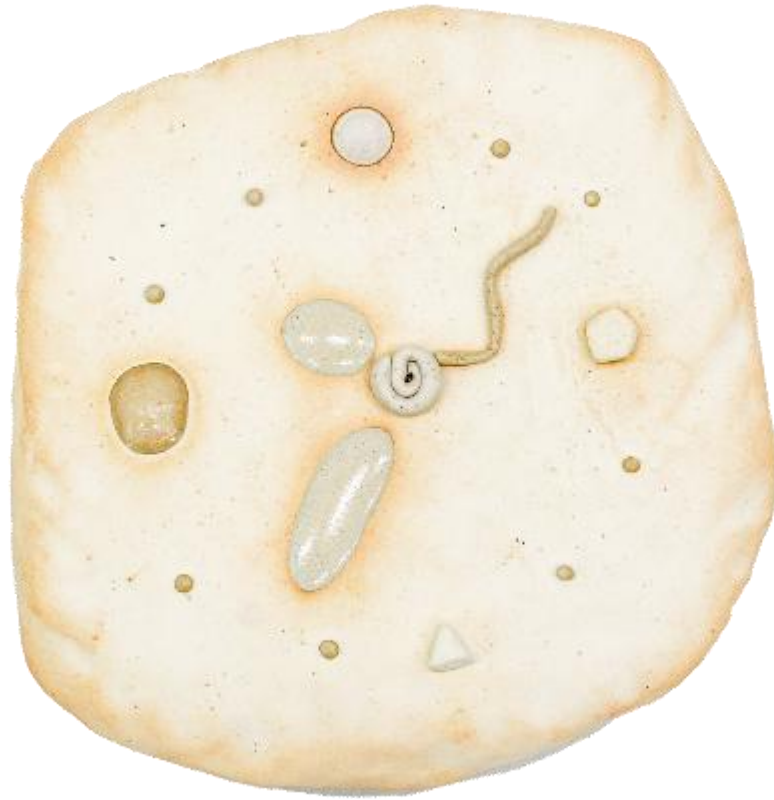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16, 2024, ceramic, 30 x 29.5 x 1.5cm



김현영, 시계(Twin) 20, 20.5, 2024, ceramic, 17.3 x 17.7 x 2cm, 17 x 17.5 x 1.7 cm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21, 2024, ceramic, 19 x 21 x 3 cm



김현영, 시계(Forms of time) 23, 2024, ceramic, 19 x 18.5 x 3.8 cm

“이 작업은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시계’를 다루지만, 그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의 비가시적이고 유동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일반적인 시계가 균일하고 객관적인 흐름을 전제한다면, 이 작품은 불에 의해 녹아내리고 퍼지며, 갈라지고 응고된 표면을 통해 시간의 비선형성과 불균질성을 가시화한다. 숫자와 바늘이라는 익숙한 기호는 남아 있지만, 그것들이 놓인 바탕은 이미 통제된 형태를 벗어나 있어, 시간은 더 이상 정확히 읽히는 값이 아니라 감각되는 상태로 전환된다. 따라서 작품은 시간을 ‘재는’ 장치라기보다, 시간 속에서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드러나는가를 기록한 결과물로 읽힌다.

말하자면, 시간은 인간이 설정한 단위가 아니라, 물질의 변형을 통해 체감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은 인간 중심적인 시간 개념을 해체하고, 우리가 공유한다고 믿는 시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 속에서 다르게 경험된다는 점을 환기한다.”

- 작가노트



박유현 Youhyun Park
b.1996
@youhyunpvrk

박유현은 통제된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변화를 통해 우연과 필연이 만나는 순간을 탐구한다. 작가는 기울어진 판 위에 유약의 두께와 광물 입자의 밀도, 표면의 조건을 설정하지만, 최종적인 형상은 고온의 가마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질의 반응 속에서 나타난다. 유약은 흐르고 멈추며 변지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표면의 형상이 기록된다.

작가는 이러한 변화를 실패가 아니라 작업의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필연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박유현, 우연으로의 필연, 2024, 백자토, 판성형, 1280도 산화소성, 49.5 x 15.5 cm



박유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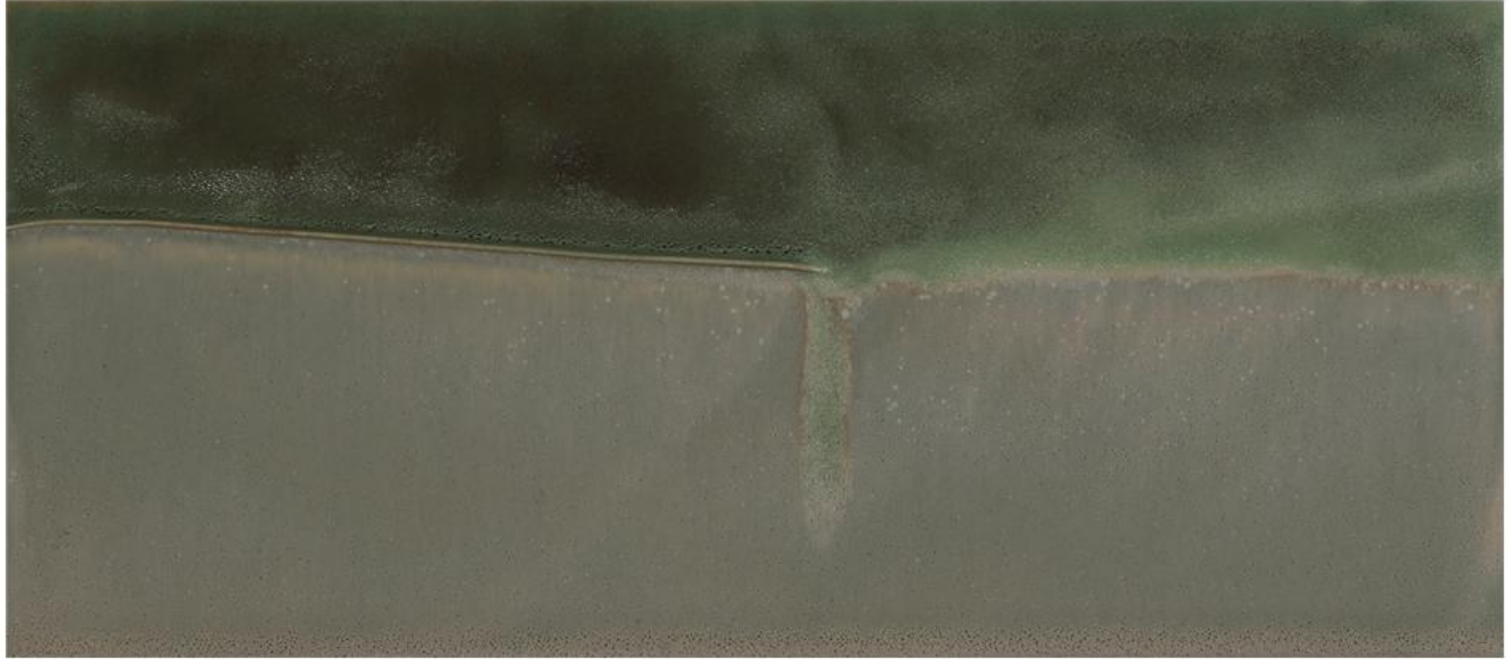
박유현, 우연으로의 필연, 2024, 백자토, 판성형, 1280도 산화소성, 49.5 x 17.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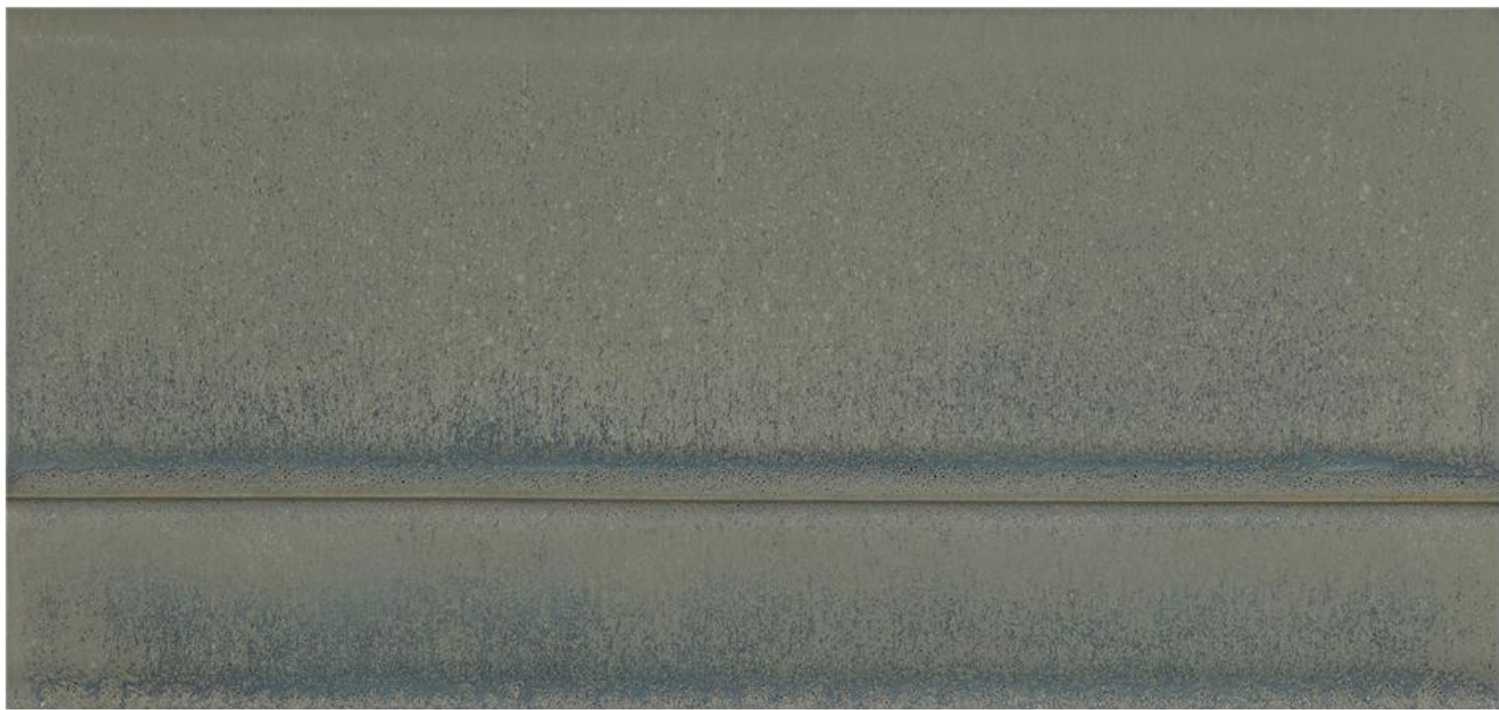
박유현, 우연으로의 필연, 2024, 백자토, 판성형, 1280도 산화소성, 49 x 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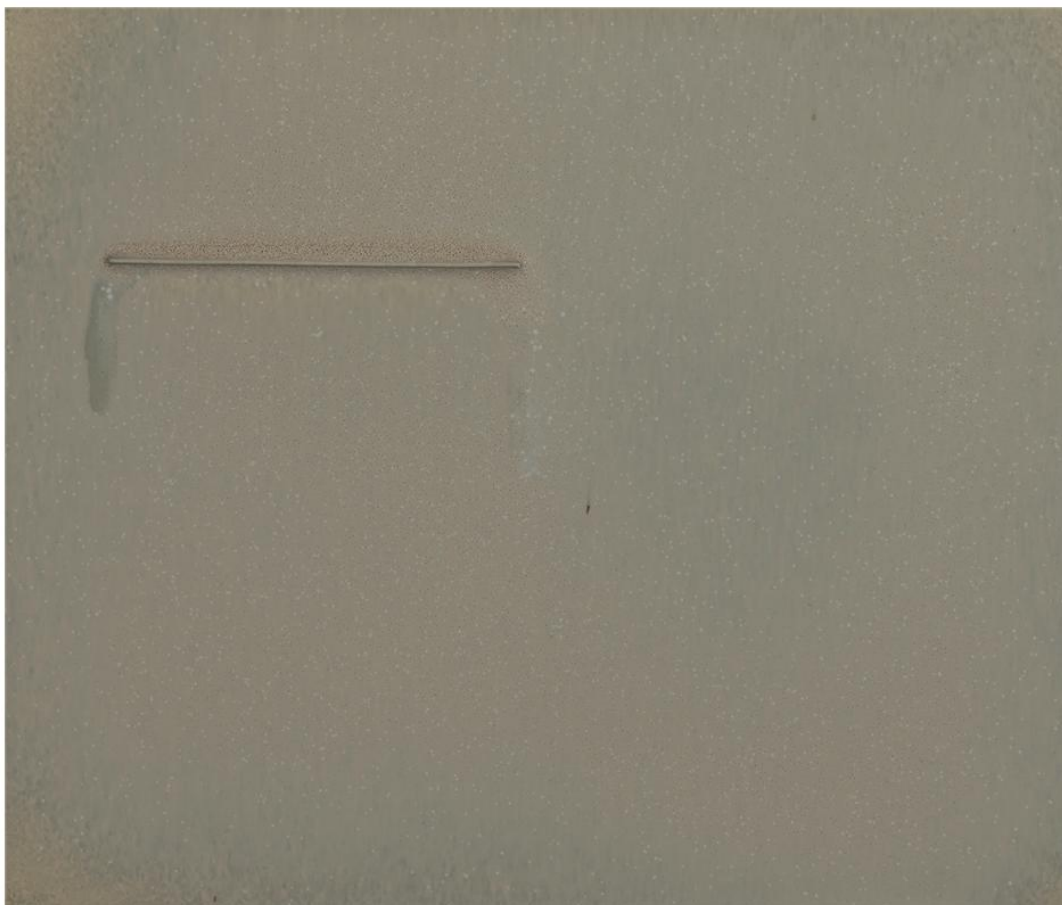
박유현, 우연으로의 필연, 2024, 백자토, 판성형, 1280도 산화소성, 49 x 8 cm



박유현, 우연으로의 필연, 2025, 백자토, 판성형, 1280도 산화소성, 34 x 15.5 cm



박유현, 우연으로의 필연, 2025, 백자토, 판성형, 1280도 산화소성, 34 x 15.5 cm



박유현, 우연으로의 필연, 2025, 백자토, 판성형, 1280도 산화소성, 36.5 x 31 cm

“흙이라는 재료와 다양한 광물질은 늘 예기치 못한 여러 사건과 사고의 방식으로 존재했다. 일관된 실험과 변수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들은 예상 밖의 일들에 취약한 나를 좌절시켰고, 그것들이 이해불가능한 물질이라고 여겼다.

늦게나마, 수많은 일들이 내가 그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순진함을 깨고 나와서야 내 손을 떠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는 시각적 방식이, 내게 새로운 기대를 심어주는 이벤트가 되었다.

판 위에 얹어진 유동성을 가진 유약은 특정한 두께로, 내가 한정한 면적 안에서 그리고 특정한 각도로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아 흐르고 굳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나의 의도와 의지에 의해 갖추게 된 재료의 모습이 열로 채워진 가마 속 공간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의 화학반응에 의해 우연과 필연의 순간 들을 거쳐 이루어진다.

비로소 우연은 두려운 사고가 아닌 뜻밖의 생경함과 새로움이 되었다. 사건은 시간 과 공간 속에서 그 위치를 갖는다는 물리학적 설명을 믿으며, 서로가 반응하여 만들어내는 우연한 사건들의 순간을 경험하고 만들어보고자 한다.”

-작가노트



김정현 Junghyeong Kim
b.1999
@Kimjh_art

김정현은 흙, 돌, 나무와 같은 재료를 손의 촉각과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다루며, 언어로 설명되기 어려운 감각과 정서를 응축된 덩어리의 형태로 드러낸다.

작가는 재료를 강하게 조형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누르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물질의 저항과 흐름을 따라간다. 부드럽게 마모된 표면과 촉각적인 형태는 사물을 재현하기보다 물질이 응축되는 시간을 드러낸다.

그의 드로잉 역시 흑연의 축적을 통해 손의 움직임이 남긴 흔적을 기록한다.



김정현, Apple, 2024, 은행나무, 31 x 31 x 26 cm

“우연히 손에 얻게 된 나무를 길들인다.
썩어서 부서지는 부분을 도려내고 각진
부분과 갈라진 틈을 따라 사포로 갈아낸다.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을 어루만진 끝에 제법
둥근 형상이 된다.”

나무의 물성 상 한때 살아있던 생명이었던
만큼 덩어리와 교감하고 다듬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분이다.
재료에 따라 손길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
형상도 매번 새롭다.”

- 작가노트





김정현, Hear, 2024, 백자토, 6 × 5 × 6 cm



김정현, Ear, 2021, 황동, 부식, 6 x 7.5 x 4cm



김정현, Rue, 2026, 흑연점토, 5 x 4 x 5cm



김정현, Coral 1, 2024, 자사토, 10 × 8 × 8 cm



김정현, Scapula, 2024, 자사토, 9 × 7 × 7 cm



김정현, Brain, 2024, 자사토, 9.5 × 9 × 8 cm



김정현, Morning Glory, 2020, 자사토, 12 × 8 × 9 cm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피하며
조용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편이다.
말로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의 한계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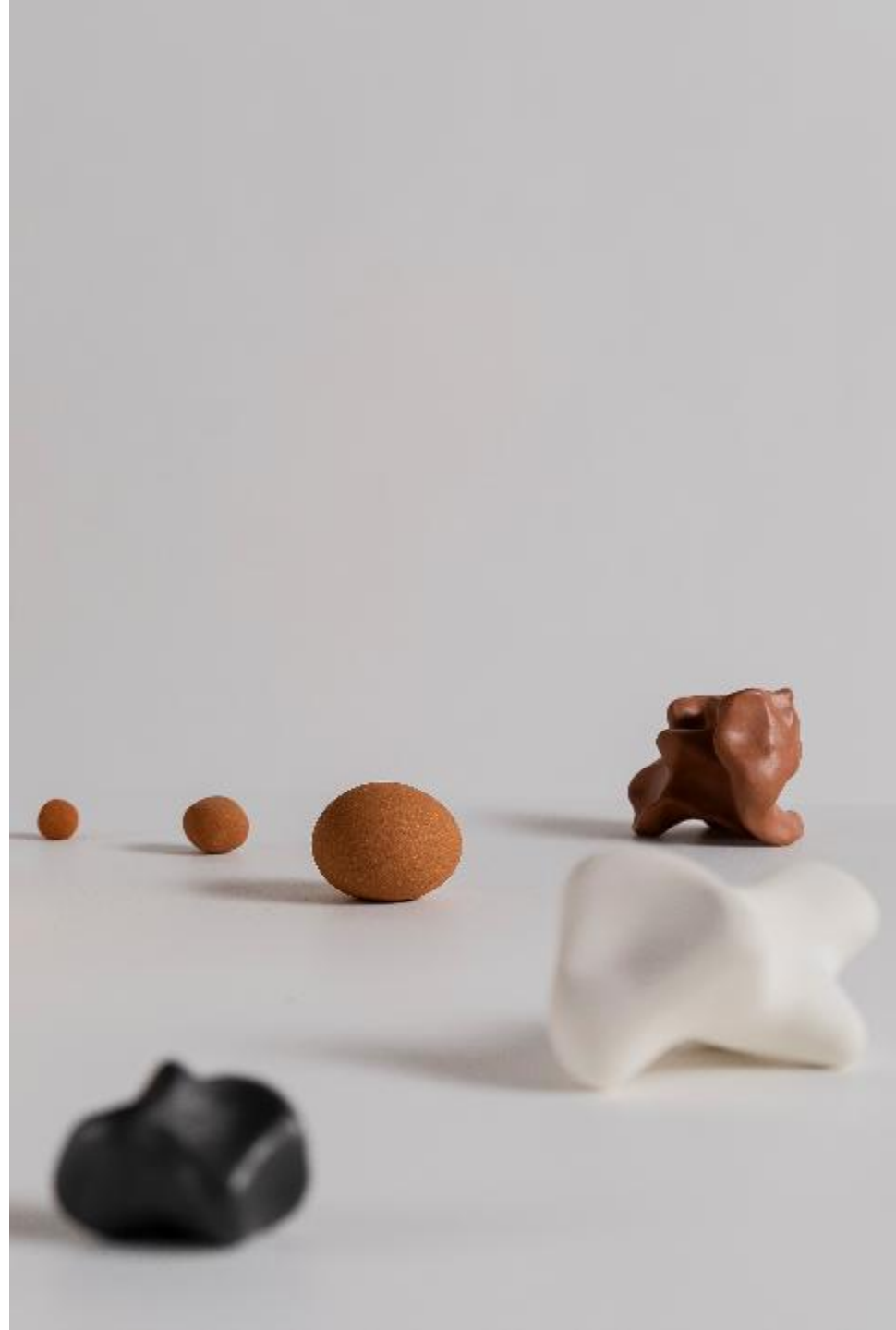
이야기를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통용된
단어로 대상을 일반화하는 폭력이 존재한다.
말을 꼭꼭 눌러 담고 있기에 누구보다 할 말이
많다.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눌러 담고 압축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흙과 나무와 마찰하여 돌을
만든다. 언제나 그저 있는 돌이 좋다.
흙은 한때 돌이었고 돌은 다시 흙이 되어
흩어진다. 자연의 압축과 마모처럼 손길로 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흙덩어리를 집요하게 축각하여 단단하고
유기적인 덩어리를 만든다. 손의 압력과 온기로
흙이 응축된다. 끊임없이 다듬을수록 표면은
마모되고 부드러운 살결을 닮는다.
손안에 빈틈없이 자리 잡은 단단한 덩어리는
묵직하게 온기를 담는다.

흙의 물성과 형상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형상을 띤다. 흙의 점성에 따라 응집력과 손의
저항이 달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형상이
나타난다.”

- 작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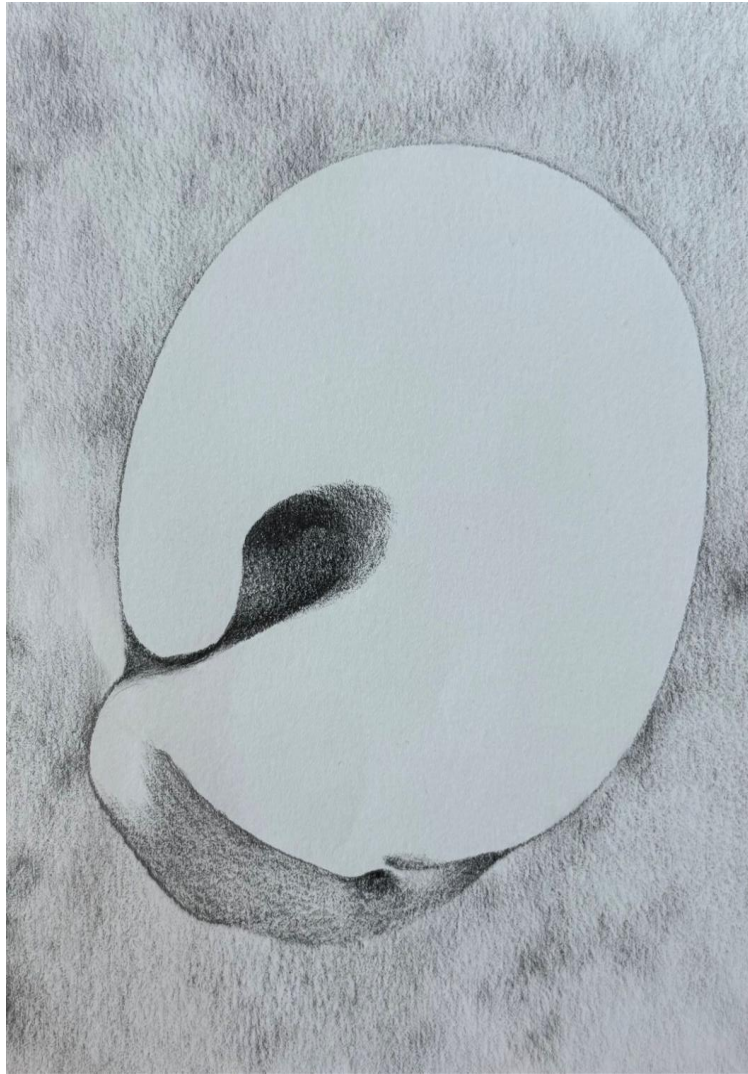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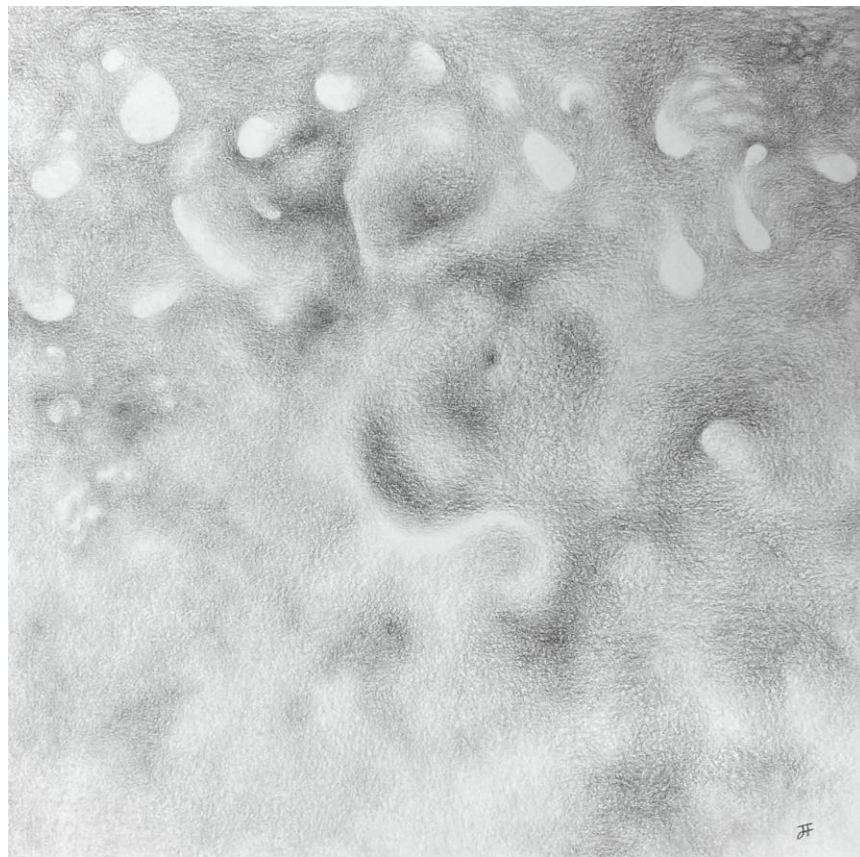
김정현, Substance I, 2025, 종이에 흑연, 11 × 10 cm



김정현, Substance II, 2025, 종이에 흑연, 10 × 12 cm



김정현, Substance III, 2025, 종이에 흑연, 10 × 15 cm



김정현, Mudfield, 2024, 종이에 흑연, 17 × 13 cm



김정현, *Surface*, 2026, 종이에 흑연, 15 ×13.5 cm



김정현, Crawl, 2026, 종이에 흑연, 17 × 24 cm

“재료 속의 형상 나무의 결을 따라 연필로
긋는다. 그러다 어렴풋이 형상이 떠오른다.

종이의 결도 마찬가지다. 용기토를 손에 넣고
주무른다. 그러다 손자국 안에 형상이
떠오른다. 재료와 도구, 손, 흑연이 만나는
지점에 주목한다. 의도와 무관하게 재료의
내부 구조나 성질은 자연스럽게 형상에
개입한다. 그날의 습도, 손의 상태, 집중도,
시간과 장소- 모든 조건이 얽혀서 발견된다.

그것이 재료이기 이전에 존재했던 사물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와 일치되길 원한다.
유기적인 형상은 사물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이다.”

- 작가노트



금예진 Yejin Keum
b.2000
@keumyejin1

금예진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사소한 대상들을 예민하게 관찰하며 그것을 조각적 형태로 전환한다.

감자, 비둘기, 젖은 낙엽과 같은 평범한 것들은 그의 작업에서 물질성이 응집된 둥근 덩어리로 다시 나타난다. 목재와 도자 재료로 만들어진 조각은 불균질한 표면과 약간 비껴선 균형을 유지하며, 사소한 대상이 지닌 소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작가의 작업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따뜻한 온기와 가벼운 유머의 순간을 발견하게 한다.



김예진, 비둘기, 2025, 청자토 백조형토, 20 x 11 x12 cm



김예진, 감자, 2025, 은행나무, 9 x 7 x 12 cm



김예진, 나무 만들기.1, 2026, 백자토 용기토, 9 x 6.5 x 13 cm



김예진, 땅 위 나뭇가지, 2025, 청자토, 백조형토, 2 x 2 x 7.5 cm



금예진, 비 오는 날-바닥에 쌓인 낙엽.2, 2025, 청자토 백조형토, 18 x 23 x 0.6 cm



김예진, 앞뒤 구분하기, 2025, 흑토, 11.5 x 11.7 x 4 cm

“‘이상하다’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입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순간’들은, 사물이 평소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본래의 형상에서
멀어졌을 때, 혹은 익숙한 성질과 다른 모습이
더 두드러질 때 발생한다.

‘이상한 순간’들은 짧고 강렬하다.
사진은 그 기억을 되짚을 때 나침반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입체로 옮길 때, 촉감과 공간이
다시 살아난다.”

- 작가노트



민정범 Jeongbeom Min
b.2002
@jeongbeommim

민정범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과 모호한 상태에 주목한다.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기억되는 것과 잊혀지는 것, 진실과 거짓과 같은 대립적인 개념들은 그의 작업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고 균열과 찢김의 구조 속에서 충돌한다.

도자의 표면은 건조와 소성의 과정에서 갈라지고 들리며 변화하고, 작가는 이러한 물질의 반응을 조형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의 작업은 경계에 머무는 상태를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순간을 드러낸다.



민정범, Ripped-up, 2025, 도자에 유약, 36 x 24 x 6 cm



민정범, Ripped-up, 2025, 도자에 유약, 38 x 25 x 2.5 cm



민정범, Ripped-up, 2025, 도자에 유약, 38 x 25 x 2.5 cm



민정범, 시야의 왜곡, 2022, 백조형토에 유약, 23 x 23 x 28 cm

“나는 양립하는 두 개념 사이에 있는 모호한
중간 지점을 탐색한다.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기억되는 것과 잊혀지는 것", "진실과 거짓" 등
대립되는 개념과 그 사이의 구조에 의문을
제기한다.

경계에 대한 사유는 도자의 물성에 대한 실험의
과정을 거쳐 촉각적으로 구현된다. 건조되고
소성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변모해 가는 흙은
무엇 하나로 규정되기 어려운 성질을 지닌다.”

-작가노트



iseurrat

이스랏 아트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3길 15-8

www.iseurratartroom.com

www.instagram.com/iseurrat

작품 문의: iseurrat.artroom@gmail.com, 0507-1321-5471, dm